

하반기 반등 신호 컨 iM라이프

‘자본·상품·영업’ 수익화 엔진 시동

신계약 유입에 CSM 두터워져
변액자산 확대, 영업모멘텀 강화
K-ICS 개선세...건전성 회복 중
연금 실시간 상담 허브도 제공

iM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주춤했지만 하반기 ‘수익화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신계약 유입으로 CSM이 두터워지고 변액 중심 특별계정자산이 늘면서 판매 흐름이 이어졌고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K-ICS)도 분기 개선 흐름을 보였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M라이프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284억원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투자 부문은 적자(-80억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보험손익은 261억원으로 줄었다.

그룹에도 ‘앞으로 인식될 이익’을 보여주는 보험계약마진(CSM)은 두꺼워졌다. 기초 7070억원에서 신계약 기여 839억원이 유입됐고 가정·물량변경 및 상각을 반영한 기말 잔액은 7270억원으로 공시됐다. 당장의 분기 손익과 별개로 중기 수익화 여력을 키운다는 신호다.

자산 측면에서도 변액 축이 뚜렷하다. 상반기 특별계정자산은 1조4293억원으로 약 1400억원 증가했다.

iM라이프는 “운용자산 증가와 변액 보험 판매 확대”를 주요 변동 요인으로 설명했다. 변액은 시장 민감도가 높은



박경원 iM라이프 대표이사

‘양날의 검’이지만 판매 동력 유지 자체는 하반기 영업의 지지대가 된다.

건전성의 경우 K-ICS 비율은 경과 후 187.86%로 직전분기(181.94%) 대비 개선됐다. 다만 경과전 기준은 95.08%로 100%를 하회해 경과전·후 간극 축소가 과제로 남았다.

보험계약의 질 관리 신호도 눈에 띈다. 효력상실·해약률은 4.82%(전년 5.10%)로 낮아졌다. 25·61·73회차 등 중장기 유지율 구간은 각각 3.78%p, 7.11%p, 5.65%p 개선됐다. 신계약가치의 수익화(상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iM라이프는 조직과 전략을 ‘자본·상품·영업’의 연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렬했다. 올해 박경원 iM라이프 대표 취임 이후 자본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자본 민감도(금리·주식·환율) 관리와 적정 자본구조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상품은 경영기획 라인으로 끌어와 출

시 전 단계부터 수익성과 자본 영향(요구자본 등)을 함께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자본 중심’의 경영기조 아래 A·LM 재정립과 가치중심 보험영업으로의 전환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영업 실행 장치로는 연금 시장 공략에 초점을 맞춘 상담 허브가 눈에 띈다. 카카오 채널 ‘iM라이프 연금 P.R.O.’를 통해 고객·설계사 대상 실시간 상담과 예상 연금액 산출·가입·투자 상담을 통합 제공한다. 현장(GA)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사 전용 모바일 상담 시스템도 붙였다. 이 접점이 정착하면 중장기 유지율 개선과 신계약가치 중심 영업의 톱니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iM라이프의 하반기 리스크 요인은 건전성이다. 상반기 부실자산비율은 0.27%로 0.10%p 상승했는데 유가증권 1건의 건전성 분류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 하반기엔 투자·보험금융손익의 변동성 축소와 함께 경과전 K-ICS의 100%대 복귀 속도가 핵심이다.

iM라이프는 “주요 파트너 GA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받는 프로덕트 프로바이더(Product Provider)로 포지셔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운영모델 혁신(고객센터 모바일화, 언더라이팅 자동심사 확대 등)을 통한 윈스톱 오퍼레이션 서비스 제공과 연금전문 조직 구축을 통한 설계지원 서비스, 신계약 지원 전문화 등 시장 친화적인 영업모델로 환골탈태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7월 시중 유동성 55.8조 ↑... 투자 대기자금 유입

8월 광의통화 평균 잔액 440.2조

지난 8월 시중에 풀린돈이 4400조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상승에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면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8월 광의통화(M2) 평균 잔액은 44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55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

식저축성예금 등 협의통화(M1)에 MMF(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로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상품별로 보면 수익증권이 채권형을 중심으로 12조8000억원 증가했고,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지방정부 재정 집행 자금 일시 예치 및 투자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14조3000억원 늘었다.

정기예적금은 일부 은행의 예대율 관리 목적으로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은 수익증권과 정

기예적금을 중심으로 25조9000억원이 늘었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수익증과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이 늘며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협의통화(M1) 평균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9조9000억원 증가한 1312조8000억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5% 증가했다.

금융기관 유동성(Lf) 평잔은 5790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1.1% 늘었다. 광의유동성(L) 말잔은 7458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서 설민석·정승제 강의 듣는다

단꿈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미래세대 새 디지털 교육문화 선사

하나은행이 국내 대표 초등교육 플랫폼 ‘단꿈e’를 운영하는 ㈜단꿈아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단꿈아이와 독점 제휴를 맺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교육문화 경험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 앱 ‘하

나원큐’ 내 놀이터 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대표 역사 스토리텔러 설민석의 흥미로운 도서 강의 시리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알파세대 체험형 금융 플랫폼인 ‘아이부자’ 앱에서는 수학 일타강사 정승제의 초등 수학 강의 영상 콘텐츠가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이 단순한 콘텐츠 제공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손님 증대 전략과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교육 콘텐츠를 디지털 플랫폼에 결합함으로써,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호성 하나은행장(오른쪽)이 설민석 단꿈아이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리 기자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간담회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신설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을 핵심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지원하고, 저신용·저소득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 부담과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대전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소비자 단체, 서민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제시했던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반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정책수요자 개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이 신뢰의 기반 위에서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그동안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의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라면서 “홍콩 ELS 같은 불안전판매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과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빚과 높은 금리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진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와 금융약자의 시각에서 기존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새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광범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우선 듣고 보는 익숙한 시각과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이를 위해 소비자·서민·취약계층, 국민모두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금융소비자 정책평가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사후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하고,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수익성 증대에만 매몰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정착과 소비자보호 조직의 역할 강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3분기 오피스텔 매매·전세 동반 하락

서울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
임대시장 월세화 현상 뚜렷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월세는 상승 폭을 키우며 임대시장 내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매매가격이 0.32% 떨어져 전분기(-0.34%) 대비 하락폭이 소폭 줄었고 서울은 보합(0.00%)에서 0.11% 상승으로 전환됐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39% 하락, 전세가격은 0.20% 하락, 월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은 -0.65%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광주(-0.97%), 대구(-0.

81%), 경기(-0.64%), 인천·부산(-0.61%)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공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20% 떨어졌다. 수도권은 -0.17%로 낙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전분기 -0.02%에서 0.07%로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교통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0.71%), 인천(-0.57%), 대전(-0.44%), 광주(-0.37%) 등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월세가격은 전국 평균 0.30% 올라 상승폭이 전분기(0.20%) 대비 확대됐다. 서울(0.53%)·수도권(0.32%)·지방(0.22%) 모두 오름세를 보였으며 울산(0.72%)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월세가 상승한 배경에는 전세사가 우려로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된 점이 꼽힌다.

/전지원 기자 jiw13@